

## 개원가에서 놓치기 쉬운 감염관리

유 태 영 / 하안치과의원

치과 임상환경은 혈액·타액·에어로졸에 대한 복합적 노출이 상시 발생하는 고위험 의료 현장이다. 표준 감염관리 지침이 형식적으로 준수되더라도, 바쁜 진료 흐름과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실제 적용 단계에서 반복적 누락이 발생하는 취약점이 존재한다. 본 강연은 개원 치과의원에서 빈도 높게 발생하는 감염관리 실패 지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임상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위험기반 표준화 운영안을 제시한다.

감염관리 영역을 제어사이드 처치, 기구 재처리, 치과유닛 수관, 환경 표면, 직원 안전, 의료폐기물 등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위험요소를 점검하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현황 파악 방법을 소개한다.

주요 논의 주제는 ① 환자 1인당 1핸드피스 원칙과 내부 세척·오일링 후 포장 멸균, ② 수관 바이오필름 억제를 위한 flushing 프로토콜·화학적 소독 및 수질 모니터링, ③ 인상체·보철물의 교차오염 예방 절차, ④ 환자 교체 시 고접촉 표면 소독 및 접촉 시간 확보, ⑤ 멸균기의 정기 생물학적·화학적 검증과 포장·보관 관리, ⑥ 의료폐기물 분리 배출과 혈액·체액 노출사고 대응 프로토콜이다.

감염관리의 핵심은 개인의 주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누락을 구조적으로 예방하는 반복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다. 위험기반 체크포인트와 표준화 프로세스는 개원가의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환자 안전과 의료진 보호, 진료실 신뢰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 학력 및 경력

- \*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학사
- \* 연세대학교 구강악안면외과 석사
- \* 대한치과의사협회 홍보이사
- \* 대한구강악안면임플란트학회(KAOMI) 기획이사
- \* 현, 하안치과의원 대표원장